# 제3강: 영혼(psyche)이란 무엇인가

## ◆ 1교시: 영혼과 사회, 그리고 추상성

▲ 영혼의 개념에 대하여

지금 얘기의 포인트는 '누구'가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인 하나의 possibility로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바깥의 타자(他者)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특정한 경험 속에서 사물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회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한도 끝도 없고. 어떤 이야기든 계속해서 읽으면 익숙해지니까요.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물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능이라는 것이 가장 탁월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경지가 어디냐는 거지요. 지적(知的)이라는 말을 썼죠.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는 것은 과연 어디인가. 이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플라톤의 『대화』 편을 전제로 하고 출발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능의 주체자는 영혼의 자기 운동의 자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능의 주체는 psyche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자기 운동입니다. 희랍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psyche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죽은 것으로 보았지요.

psyche는 말의 원래 의미는 생명입니다. 『일리아스』 보면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소크라테스 시절에 오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영혼이라는 의미도 추가가 되지요. 그래서 가장 탁월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때는 영혼이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때다.

이 말 참 묘하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사물을 가장 탁월하게 보는 것은 눈이죠. 영혼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본다는 말, 희랍철학에서 '본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으로 보는 것부터 눈으로 보는 것까지.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진실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억지로 따지면 그렇죠. 본다는 말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는 것 염두에 두시

www.artnstudy.com

고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영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적 능력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방해하는 것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냐.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영혼 능력이 오로지 그 자체의 운동만으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유한다면 그대로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혼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사유를 하려고 하면 그 사유를 틀리게 하죠. 오류가 발생하게 하죠. 그것은 항상 밖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항상 밖에서 주어진다. 자기가 자기 안에만 머물면 그것은 자폐증(自閉症)이 되지요. 지적인 자폐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아닌 타자와의 부딪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그것의 극한치를 놓는다. 영혼이 인식을 하면 그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의 경계선이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신체로부터 해방되어 볼 때는 사물 그 자체로서 보게 된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자체적인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인식론의 핵심입니다. 인식 주체가 있고 인식 대상이 있을 적에 우리 눈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noesis, 사유능력. 이 사유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psyche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감각능력이 있죠. aisthesis죠. aisthesis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soma(몸, 신체)에서 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인식론은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 능력에 의해서 파악되는 대상의 어떤 측면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aistheton. 인식된 것. aistheton은 현대어로 하면 the sensible이지요. 감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noesis(순수 지성의 의식 작용)에서 파악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noema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는 noesis와 aisthesis, 감각 능력이 있고 우리의 감각 능력이 파악하는 것이 the sensible한 것이고 우리의 이성 능력에서 판단하는 것이 intelligible한 거죠. 이런 구도입니다.

▲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이해

서양 인식론의 역사라는 것은 이 구도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 내 눈의 기능과 시각적인 이것, 내 귀의 기능과 귀에 들리는 것, 내 피부의 기능과 촉

www.artnstudy.com

각. 이런 것입니다. 인식 기능과 이 세계에 맞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능력은 현상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을 갖고 보면 촉감, 소리 이상의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서양 인식론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면 이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부정하기는 힘들죠. 내가 눈을 갖고 있다. 힘들다. 이것은 부정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생기죠.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존재와 사유의 일치입니다. 존재와 사유의 일치. 이것을 딱 끊어버리면 그것은 근대철학입니다.

물론 noesis와 noema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이데아론이 나오죠. 계속 변하죠. 이데아론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파이론이죠.

그런데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Parmenides)편에서 이데아론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설을 중세적 종교의 분위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데아는 진리다, 그것을 들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플라톤 스스로도 계속 질문합니다. 가설(假說)을 세워봅니다.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에서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플라톤이 이데아설을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데아론을 너무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플라톤 전체를 놓고 고민해야만 할 문제이지 개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큰일납니다.

하여튼 이 파이돈편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가장 단순하게 표현된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 가장 종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성격이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종교적이고 어떤 때는 수학적이고.

아무튼 의미의 층차(層差)나 논의의 방식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2500년 전의 사람이 쓴 것을 왜 이렇게 읽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도 그렇게 만만한 이론이 아닙니다.

파이돈편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 종교적으로 표현된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중세 기독교 철학에서 플라톤을 읽을 때 항상 이 파이돈(Phaidon)을 읽습니다. 중세 사람들이라고 해

www.artnstudy.com

서 플라톤의 『대화편』을 다 읽은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읽었는데. 특히 파이돈편을 많이 읽었는데요.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마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85쪽. 그것 자체가 사유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존재자들중에 자체적인 것이다. 자체적인 것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식 기능은 영혼이 하는데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신체 속에 갇혀 있다는 조건 속에서는 그것을 감각이라고 한다.

우리의 신체 속에 갇혀 있고 신체들은 사물의 sensible한 측면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넘어서 사물의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감정을 떠나야 한다. 그때 나오는 말이 카타르시스(katharsis)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원래 굉장히 종교적인 말입니다. 정화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카타르시스의 요소를 갖고 있죠. 때 묻은 것을 씻어낸다든가.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하지요.

희랍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플라톤은 그것을 인식론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플라톤은 물질이 거꾸로 가는 운동을 한다고 한다. 물질을 방해하고 제약하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to on은 리얼리티죠. 쉽게 말하면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pre se는 요즘도 영어책 읽다 보면 가끔 보시죠? 이것이 영어로 된 것이 뭡니까. in itself이지요. 그러니까 감각에 의한 판타지를 다 씻어냈을 때 영혼의 진실을 본다는 의미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감각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한다면 존재가 존재 그 자체를 보는 거죠. 극한치지죠. limit.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극한치라는 거죠. noema는 영어로 sort죠. 사유된 것.

영혼은 왜 인식이 있느냐는 문제와 물질은 왜 인식이 없느냐는 문제는 물질이 무엇이냐는 문제로 나아간다. 왜 영혼이 있는 것은 보는데 영혼이 없는 것은 인식을 못 하느냐. 파이돈편에서는 신체인 것과 신체를 벗어난 것이 나오고 국가편, 소피스트 등에서도 나오고요.

인식기능에 있어 이 대목은 중요한데 플라톤에게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감각에서 벗어난다는 것, 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지요. 물질은 인식이 없지요. 왜냐면 물질의 운동은 자기 동일성을 가질 때 인과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택이 없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타자와 자기 사이에 어떤 심적 거리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지금 탁자 위에 있는데. 이 책이 탁자에 대해서 어떤 심적 거리를 둘 수는 없는 거죠. 심적 거리를 둘 수 없다는 얘기는 그저 물리적 인과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自)타(他) 구분이 확실해지지요. 일종의 심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 심적 거리라는 것이 인간 삶의 모든 것

www.artnstudy.com

을 가져오죠. 아집이라든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 등. 온갖 종류의 복잡한 것들이 다 심적 거리입니다.

이 심적 거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우정을 맺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다 심적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 심적 거리를 유지하면 항상 自와 他의 구분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굉장히 외롭죠.

나머지는 다 他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심적 거리를 없애고 다시 하나로 되려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심적 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영혼의 모순이죠.

심적 거리를 없애면 죽고 정작 심적 거리가 있으면 불안하고. 경쟁, 아집, 이기심. 이런 것들과 밀고 당기는 고뇌가 일어나죠.

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 choice의 개념이 등장하죠. 물질에서는 힘이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영혼은 내부적이지요. 물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예를 들어 soma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과 영혼을 제한한다.

여기에는 이미 영혼과 신체를 대립적으로 보는 구도가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희랍 철학, 플라톤 철학의 한계를 얘기할 적에 몸과 마음을 너무 대립적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죠. 물론 나중에 가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나 파이돈편에서는 그것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라톤을 얘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편인지를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죽 했으면 이 사람이 2천 년을 지배했겠어요. 2천 년 동안에 플라톤을 넘어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잖아요. 서양 철학에서. 데카르트나 돼서야 이제 뭔가가 나오죠. 그만큼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의 사유 단계에서 어디, 어느 대화편인지를 밝혀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파이돈편은 가장 단순하고 종교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플라톤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신체를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Theaetetvs)편은 그의 말년에 주로 쓴 책인데요. 말년에 쓴 세편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 철학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테아이테토스(Theaetetvs)편의 주제는 인식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들으려고 하는데 귀가 병이 난다. 멀쩡한 눈도 안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요컨대 모든 신체적 인식은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degree, 정

www.artnstudy.com

도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보셨어요? 아침에 보는 물병과 저녁에 보는 물병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저녁에는 보통 피곤하잖아요. 그때 물병을 보면 굉장히 흐리게 보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죠. 아침에 보면 또 맑고 보이고.

즉 모든 감각(sense)은 정도(degree)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인식이란 본래 무언가 딱 떨어져야만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을 덧붙이자면 마음도 그렇죠.

psyche, 영혼도 사물을 의식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도 하루에 열두 번도 변하죠. 어떤 때는 괜히 기분 좋고 또 어떤 때는 괜히 우울하고. 그것도 degree죠. 동양식으로 말하면 氣인 거죠.

理라고 하는 것은 탁 존재하는 거죠. 기는 항상 변하죠. 기화(氣化)죠. 氣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변하는 거죠. 내 몸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essence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 우리 신체는 degree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쾌락과 고통이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카타르시스로 정화하고 본질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청중의 낭독)

▲ 사회(社會)- 수많은 개체성의 집합

이것을 조금 보자면 프로타고라스(Ρρωταγόρας, BC 약 490/485-415/410)의 상대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말에서 인간은 인간의 종(種)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a man, 또는 a woman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춥냐 덥냐고 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죠. 옛날에 저하고 엄청 체질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저는 추워서 움츠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더워서 막 벗어요. 누가 맞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프로타고라스의 얘기입니다.

상대성, relativity 는 1차적으로 신체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relativity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떨어져 있어야 하겠죠.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에 있는 간과 폐가 전부 다 relativity하다면 골치 아프겠죠. 그 사람은 죽겠지요.

떨어져 있고 각자의 individuality를 가질 때 사회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조화롭고 전체적으로 가져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애초에 사회는 여러 individuality가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www.artnstudy.com

그런데 전통 사회로 갈수록 사회라는 건 하나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였지요. 봉건시대나 조선시대에 살면서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하면 나쁜 놈 되지요. 그만큼 옛날로 갈수록 인간의 삶은 biological하다는 겁니다. 생물학이지요. 기본적으로.

군집(群集)이지요. 그것이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체성과 자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회(社會)라는 말 자체가 근대적인 것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조선 사회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건 society가 아니지요.

society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이미 individuality를 갖고 있는 것들의 집합을 society라고 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모순입니다. 사회는 각각의 individuality가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조선 사회라는 말은, 용어의 모순이지요. 사회 자체가 근대적인 것이죠. 20세기는 번역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에서 이 society를 번역하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왜? 사회라는 말에 대한 사전을 보니까 일본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한참 고민해서 번역한 것이 사회(社會)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웃기는 번역이지요. 웃긴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아주 전근대적인 번역이지요. 사(社)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동네에 가면 유골 모아놓고 제사 지내는 곳이 있잖아요. 이 사(社)에요.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보존하소서. 이때도 이 말을 쓰지요. 또 일본에 가면 많은 거 뭐죠? 신사(神社). 원래 이 말은 재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즉 society라는 모던한 단어를 굉장히 고전적으로 번역한 거죠. 아이러니컬하게요. society라는 근대적 단어를 전근대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번역하기 어려우면 이 글자를 썼겠습니까.

물론 전근대와 근대를 그렇게 엄격하게 나눌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 지금도 개체성이 그렇게 보장이 되느냐. 그렇게만도 볼 수 없죠. 어쨌든 사회라는 말의 뉘앙스를 알아두세요. 개체성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모임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라고 하는 불연속을 벗겨내 내려가면 생물학적인 연속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동생과 형이 다 따로따로 살지요. 하지만 그런 개별성을 다 벗겨내고 내려가면 무엇이 나오죠?

생명의 연속성이 나오죠. 생명의 연속성과 사회의 불연속성,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중에 베르그송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신체의 개체성을 파괴한다는 말도 했고, 인간의 사회성은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www.artnstudy.com

▲ 학문의 본질- 추상성

추상한다, abstract 한다는 말은 물리적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정치 활동, 문화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문이라는 것은 추상성을 가장 본질로 하죠.

정치는 권력을 본질로 하고 경제는 돈이나 이익을 본질로 하죠. 스포츠는 신체적 능력을 본질로 하는 등 여러 전제가 있는데. 학문적인 행위는 전공에 상관없이 그 본질은 추상입니다.

abstract하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리 세계를 벗어나는 거죠. 개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학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죠. 음악, 미술, 영화, 정치, 경제, 법, 스포츠. 엄청나게 많은데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죠. 왜 그럴까. 추상적이니까요.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더 추상적인 것으로. 서양 역사에서 가장 abstract한 것의 표본은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집 앞마당에 있는 세모 돌맹이나 철수네 집에 있는 돌맹이를 다루는 게 아니죠.

어떤 abstract한 삼각형을 다루는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은, 누구의 눈동자, 보름달, 시계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수학이야말로 모든 science의 기본이죠.

science를 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과학적 인식을 한다는 것은 수학적 능력, 또는 logic의 능력을 전제하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읽었다는 전제 하에 읽고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이런 대목처럼 원본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철학과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베르그송.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www.artnstudy.com